

활기 띠는 '서울 올림픽' 출판

한국의 역사·삶에서 교통·숙박 안내까지... '소재' 다양화해야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림픽을 겨냥한 도서들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기왕의 사진화보를 중심으로 한 홍보적 성격을 벗어나 우리의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을 '한국의 오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출판물들은 국내인은 물론 대회관계자를 비롯한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의 저작 활동이 두드러지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이모저모를 분석한 이러한 책들은 올림픽 무드를 한결 북돋아 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술된 한국 소개출판물의 대부분이 영문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저자가 갖는 한계 때문에 내용이 다소 피상적일 수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외국인 저작 영문판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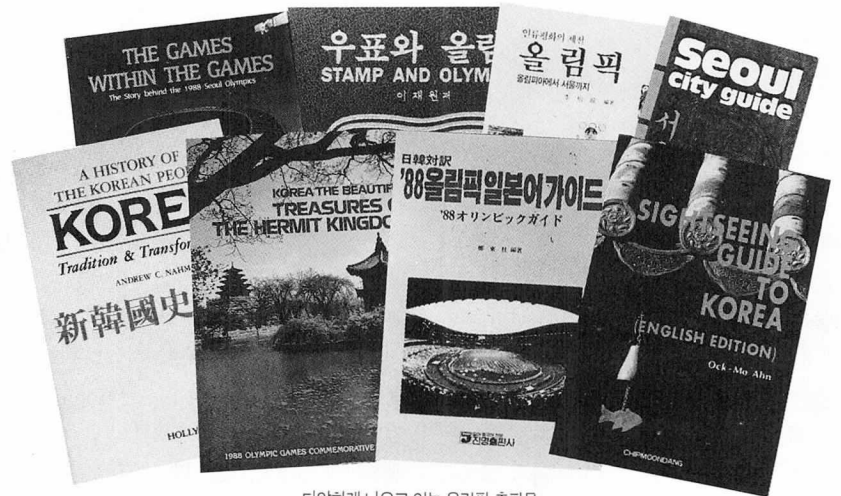
최근에 나온 도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판된 올림픽관계도서는 국내저자가 쓴 것과 외국인이 쓴 것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것들은 대개가 한국의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한 개괄적 서술과 함께 올림픽을 대비한 경기장 안내·교통·숙박·관광안내 등을 곁들이고 있다.

「Between Two Seas」(David Price, 서울국제출판사) 「The Games within the Games」(Vincent Ricquart, 한통출판사) 「Walking in Seoul」(롭 윌슨, 민음사) 「Discovering

Seoul」(Donald N. Clark, 서울컴퓨터프레스) 등 외국인이 쓴 한국관계도서는 내용구성상 일반적인 홍보자료와는 달리 자신이 경험한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빈센트리퀴트가 서문에서 밝힌 "언어장벽과 급격한 한국의 정치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책들은 한국의 역사·지리·문화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과 함께 경기장 안내·교통·숙박·관광안내 등을 곁들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저작이 많아 내용이 피상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또 영문판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타인지 대체적으로 한국에 관한 이론적인 자료제시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평범한 한국의 모습, 한국인의 생활을 담고 있는 이 책들에서는 달동네나 시장, 역전 등 일반홍보책자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네의 뒷면을 담은 사진도 눈에 띈다. 또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배경도 외국인의 시각에서 외신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교보문고 전문서적영업과 김경수 씨의 "외국인들이 쓴 책을 많이 찾고 있다"는 말은 이제는 외국인들도 아름다운 사진을 담은 책보다는 삶을 다룬 얘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다만 영문판 위주에서 벗어나 더욱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The Games within the Games」의 경우, 본래 불어판을 영역한 것으로 불어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올림픽 출판물

출판이 부족한 시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저자가 쓴 책의 경우, '홍보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한국의 역사와 명소안내에 중점

올림픽기념으로 출판된 「Korea the beautiful : Treasures of Kingdom」(유유신, 대원프레스)은 한국의 지리, 문화, 전통, 풍습 등을 다채로운 사진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Wonderful Korea」(우진문화사) 등이 눈에 띈다. 「Sightseeing Guide to Korea」(안목모, 집문당)는 여기에 관광통역교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제 관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쓴 「Koreana」(현웅, 한국브리태니커회사), 「Korea: Tradition & Transformation」(남창우, 한림출판사) 등도 나와 있다. 이중 「Korea: Tradition & Transformation」은 고대사에 치중하는 기존의 역사책과는 달리 근대사와 현대사, 특히 북한의 정치제도나 사회

구조·경제·문화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련의 이러한 책들은 몇몇 손꼽히는 명소의 안내를 담은 사진집으로 대표되어오던 관광홍보책들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잡한 인쇄나 번역수준도 문제지만 천편일률적인 소재도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을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과 徐斗鉉 계장의 지적처럼 우리를 포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소재개발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의 편중화현상은 올림픽을 겨냥한 몇몇 회화책들에도 두드러진다. 각 경기별 개요와 관광 실용정보, 올림픽의 역사, 역대 올림픽의 특징 등을 실은 일한대역판인 「88 올림픽 일본어 가이드」(鄭東住, 진명출판사) 「관광통역일본어」(陳秀蓮, 진명출판사)와 「영어 회화에서 이용할 수 있는 표현 500」(정경조, 명지출판사) 「8개국어 동시회화」(해외여행언어연구회, 고려가) 「기초 5개국 어회화」(진화당) 등 손꼽을 수 있을 정도가

“한그루의 묘목을 정성껏 가꾸듯
전문편집인력을 성심껏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최초의편집인력양성학원

관인 서울편집디자인학원

672-1841, 672-1842

전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하차문래동방향 150m

소련, '自費출판규정' 발표

출판의 민주화, 새로운 필자 육성 위해

최근 소련의 국가출판위원회는 “출판의 민주화, 새로운 필자의 육성, 출판의 가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기 자금으로 서적을 출판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발표, 自費출판을 공인하고 이를 진흥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규정」은, 자비출판되는 책의 내용이 “소련의 법과 이익에 어긋나지 않을 것, 소련의 국가비밀을 지키는 의무에 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문 15조로 된 「규정」의 제1·2조에 따르면, 저자는 출판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을 자기자금으로 출판할 수 있다. 출판사는 그 저작이 전문분야를 고려한 뒤 저작을 접수, 검토하여 독립채산이 가능하면 발행을 결정한다. 제3조에서는 출판되는 책 내용의 사상성·예술성·학문적 수준의 책임을 우선 첫째로 저자 자신이 지도록 하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는 자비출판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 계약에는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는데, 출판사측은 편집전반, 본문 레이아웃, 장정, 모정, 견본제작, 간행시기와 정가설정, 책의 보급 등을 책임진다. 저자는 출판비용 중 일정액을 계약 때에 출판사에 지불하고, 잔액은 책이 나온 뒤에 지불한다.

인쇄소에의 발수는 출판사가 하지만, 저자 스스로가 인쇄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인쇄소에 대한지불은 출판사가 한다. 발행부수는 3천부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자비출판으로 간행된 서적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또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重

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사는 초판본의 원고료를 저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저자는 편집·제작 등의 경비와 재료비 등 실질총제작비에 200%를 가산, 출판사에 지불한다. 발행기한을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완성된 책을 저자의 소유이며, 이를 독자적인 루트로 팔거나 통상적인 도서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유통기관은 자비출판한 책의 보급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저자가 판매경비를 지불하게 된다.

책의 속돌지 안쪽에는 “이책은 저자의 부담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밑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크와 저자명,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자비출판에 의해 최초로 나온 책의 외국에서의 출판권에 대해서는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소련저작금형회가 증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렇듯, 자신의 저작을 발표하고 싶은 필자는 출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책이 호평을 받으면 독자층의 수요도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책의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단축되게 되었다. 자비출판이 공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소련의 서적출판이 활성화할 것이 기대된다.

나와 있다. 「기초 5개국어 회화」는 영어·독어·불어·일본어·중국어의 기본 단어, 올림픽과 관계된 단어와 회화를 상황별로 엮고 있으며, 「8개국어동시회화」는 여기에 서반아어·이탈리아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관광객 뿐만 아니라 통역안내용으로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언어의 불편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을 대비한 책들에는 올림픽기간중에 유용히 쓸 수 있는 도서들도 포함된다. 이것들은 보통 관광지로나 올림픽 관전요령 등을 싣고 있는데 「서울 올림픽을 10배나 재미있게 보는 법」(양은석, 한일)과 영한대역관인 「서울 시티 가이드」(안 그래픽스) 「Discovering Seoul」(Donald N. Clark, 서울컴퓨터프레스) 등이 바로 그것.

주요 올림픽 용어, 경기규칙, 세부일정, 역대올림픽의 성적 비교, '88올림픽의 관전요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서울올림픽을 10배나 재미있게 보는 법」과 서울의 구석구석을 구역별로 자세하게 취재, 편집한 「Seoul City Guide」는 기존의 美·日에서 발간된 「올림픽 액세스」와 구성이 비슷하다. 외국인이 설명한 「Discovering Seoul」은 서울의 각 구별 지도와 함께 서울의 외곽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국내독자 대상의 올림픽 개론서

외국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출판물과 더불어 국내의 올림픽 분위기에 부응 혹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출판물들은 올림픽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대올림픽 이후 LA까지 올림픽의 역사를 개관하는 책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서울올림픽(정경연구소)「올림픽 競技史」(허보, 동양문화사) 「Olympic 스포츠」(유종우, 교학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고대올림픽에서부터 근대올림픽의 부활, 역대 올림픽의 경기종목, 그간의 한국선수들의 경기상황 등 올림픽에 대한 역사, 체제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이 책들은 올림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고대올림픽을 찾아서」(西川亮의, 鄭性鎬, 행림출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마련한 고대올림픽 기행'이란 부제가 말해주듯 두 일본학자의 그리스 경기대회 유적 순례를 번역, 출판한 것이다. 한일 양국 기자들의 취재기록을 묶은 「올림픽 인간드라마」(고려원), 여성들의 올림픽참여율과 기록을 추적한 「올림픽과 여성들」(李相哲, 한일사), 올림픽의 역사를 각 개최국들이 발행한 우표를 곁들여 설명하는 「우표와 올림픽」(이재원, 선진) 등 내용이 다양화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올림픽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기 위한 이러한 출판물들은 분명 관심을 유발하고 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역사의 일면을 차지하게 될 올림픽에 관한 출판물들은 사료적 가치로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을 위한 상업적 출판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우리의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우경 기자

요통의 예방과 치료

요통 교실

4X6판/382면/4,000원
김제우·김유재 공저

- 수영요법
- 요통과 성생활
- 요통예방과 스트레칭
- 요통과 산소요법
- 요통에 관한 전문상식
- 체질과 건강
- 요통과 식이요법
- 요통 Q & A

허리가 아프시다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국판/196면/4,000원
Rene Cailliet 저
정진우 옮김

일반인들에게 요통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미있는 그림을 삽입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쓴 책이다. 특히 부록으로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요통에 대한 운동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암으로 고통받는이와 가족들에게

신국판/270면/3,200원
이효숙 그리고 그 가족 지음

세상을 떠난 이효숙씨의 병상일지와 남편이 쓴 투병일지, 아들이 엄마에게 쓴 편지 등이 실려있다.

첨단농업분야

수경재배기술

신국판/258면/8,000원
李玲熙 편저

한국수경재배연구회 감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수경부장

도서 대학서림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125
745-1220 · 763-1220